

4/24/16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회복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겔 47:1-12

-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 (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절관주** 겔 40:3, 속 2:1
- (겔 47: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 (겔 47: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 (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 (겔 47: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절관주** 마 4:19, 마 13:47, 눅 5:10, 수 15:62, 눅 5:5, 요 21:6
-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절관주** 신 29:23
-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먼저 에스겔서의 저자이자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직접 본 장본인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간략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유다가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 포로 거주지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 번에 걸친 예루살렘 침략 중 2 번째 침략(BC 597 년)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22 년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선민임을 내세워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찌지 못하시고 곧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하실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조만간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망상된 꿈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회개없는 구원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며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에서 3 장까지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4 장부터 32 장까지는 하나님의 유다와 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특히 24 장까지는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유다 백성의 죄가 언급되었고 25 장부터 32 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의 죄도 언급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33 장부터 48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러 이제는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되찾게 되는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 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서 40 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겔 40: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겔 40: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2 차 예루살렘 침략시 포로로 잡혀간 후 25 년, 바벨론의 3 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지 11 년째 되던 해에 생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로 보이는 늦 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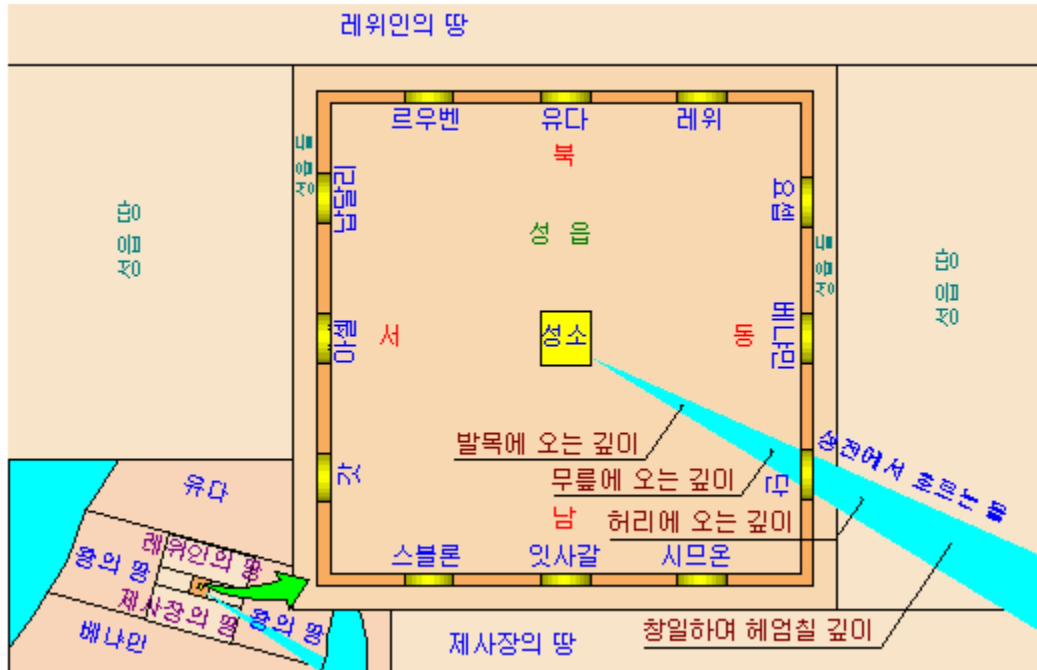
늦같이 빛난 사람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쥐고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여 주고 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 늦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앞 동쪽 현관에서 안뜰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안뜰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물이 동쪽으로 직진하여 흐르다가 번제단에 도달하여 번제단의 남쪽으로 우회하여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깊어져 성전에서 4 천척(약 550m x4=2200m)되는 지점에서는 헤엄을 쳐야할 정도로 창일한 강물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일을 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하고 회복되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물이 흘러내린 강 좌우로는 과실 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과 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고 바다는 되살아 납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데 사해는 말 그대로 염분이 보통 바다보다 5-6 배나 많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해 바다에 고기가 넘쳐납니다.

(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관건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았으면 그 환상을 통해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환상은 두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꿈과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근근히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먼 훗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 인류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핵심은 생명수 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생명을 주는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으로 끝납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한 후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슥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건기인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흘러 나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죽은 사해가 소생되는 것과 같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되신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국 만민에게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간 사해를 향해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사해 바다와 같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사해가 회복되어 소생된 것과 같이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해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셨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 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 부터 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주의 깊게 볼 귀절이 있습니다.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위에 모든 것이 소생되었는데 유독 소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닿지 않았던 진펄과 개펄입니다.

제 아무리 생명이 능력과 생명이 넘친다 해도 그 생명이 닿아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위가 다 회복되었음에도 생명이 닿지 않은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버려져 소금 땅으로 남겨졌듯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은 소생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번성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